



즉시 배포용: 2021년 5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에 목숨을 잃은 필수 근로자를 기려 조기를 게양하고
랜드마크를 점등하도록 지시**

메모리얼 데이에 깃발은 조기로 게양되며 랜드마크는 점등 상태를 유지

Cuomo 주지사: "몸의 모든 본능이 이것은 위험하니 도망가라고 말할때 아니,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은 그날, 다음 날도, 매일 위험 속으로 들어가며 감염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어 나의 아이들에게 전염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간호사, 의사, 병원 직원, 교사, 음식 배달 노동자들. 이 모든 용감한 사람들과 버스 운전자, 지하철 운전자. 저는 매일 안전을 지키도록 꼭 집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외출하지 말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필수 근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일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Cuomo 주지사: "그들은 매일 위험을 무릅썼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감사를 빚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가장 낮은 감염률로 감소시켰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민과 같은 이들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품과 힘과 용기와 단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5월 30일 일요일에 주정부 건물의 깃발을 조기로 게양하고 주 랜드마크를 붉은색, 흰색과 푸른색으로 밝히도록 지시하여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필수 노동자들을 기리도록 했습니다. 깃발은 정오까지 조기로 게양되며 랜드마크는 5월 31일 월요일까지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를 위해 점등됩니다. 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군인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 점등되는 랜드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 Mario M. Cuomo 주지사 교량(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 메인 게이트 및 엑스포 센터(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레이크 플라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 펜실베이니아 역(Penn Station)의 이스트 엔드 게이트웨이(East End Gateway)

주지사의 유튜브(YouTube) 연설 동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TV 화질(h.264, mp4) 포맷 영상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설의 음성 파일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사의 사진은 주지사의 플리커(Flickr)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지사 연설 초록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이것입니다. 메모리얼 데이가 다가왔으며, 우리는 메모리얼 데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한 이 메모리얼 데이에 지난 해 사망한 42,000명의 뉴욕 주민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000명입니다.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나누며 사망한 1,000명의 필수 노동자를 기억하세요. 계절은 바뀌어도 기억은 남아 있어야 하고 교훈 또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겁에 질렸는지 기억하십시오. 이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기간에 병원에 방문하면 마치 우주 공간에 착륙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수 의복을 입고, 안면 가리개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사진이 있는 이름표를 달았고 환자가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바이러스가 퍼지는 방식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질병과 싸우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위험에 뛰어드는 이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몸의 모든 본능이 이것은 위험하니 도망가라고 말할때 아니, 나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들은 그날, 다음 날도, 매일 위험 속으로 들어가며 감염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혹시나 감염되어 나의 아이들에게 전염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간호사, 의사, 병원 직원, 교사, 음식 배달 노동자들. 이 모든 용감한 사람들과 버스 운전사, 지하철 운전사. 저는 매일 안전을 지키도록 꼭 집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외출하지 말고,

아이를 집에서 돌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필수 근로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일 일하러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했습니다. 용감함이나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으십니까? 이타심에 관해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마음 속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황이 당신에게 진실로 일어서서 목숨을 걸라고 요청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일어서서 위험에 뛰어들겠습니까, 아니면 물러설 것입니까?

그들은 매일 위험을 무릅썼으며, 우리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크나큰 감사를 빚지고 있습니다. 뉴욕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가장 낮은 감염률로 감소시켰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우리 주민과 같은 이들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품과 힘과 용기와 단합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에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신의 축복을 바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